

나눔터

계간 제30호
1999 · 5

제15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상담소 사람들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백수)
여기는 상담실 성폭력 피해의 의료적 지원체계(조종신)
21세기 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미디어와 여성스포츠포츠(TV모니터팀)

성폭력문제연구소 8

직장내 성희롱(김지혜)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새로운 성교육의 도전(한은희)
기획 · 하나 홈페이지 SISTERS(임정진옥)
기획 · 둘 색슈얼리티 강의(윤이경미)

성문화 읽기 12

민요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박미라)

나눔터 애그글 14

관객이라는 마지막 장인(匠人)의 이름으로 (문효진)
삶이야기 첫 걸음을 디디며(이상엽)

나눔터 게시판

보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 44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4450

사단
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이런 일을 했습니까?



■ 1999년 제8차 정기총회

99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6일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열렸다. 본 상담소 회원들이 함께 한 이번 총회에서는 98년 활동보고에 이어 98년 결산, 9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임원 선출이 있었다. 새로운 임원(이사)에는 '신사크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엽 원장님이 선출되었다.

■ 자문위원워크샵

<1999년 자문위원 워크샵>이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3월 5일 자문위원, 상담원, 상근자 등 총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한해동안 각 분야 자문위원들의 활동경험을 함께 나누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며 올해의 활동 방향을 세워갈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노래패 노래도적의 공연과 요즘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스토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각 전문영역별 자문위원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어려움, 다짐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현재 본 상담소에는 올해 아홉 분의 새 자문위원을 포함해 총 138명의 자문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 직장내 성희롱 실태분석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발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는 관련법의 시행에 맞추어 직장내 성희롱 실상을 널리 알리고자 1998년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2월에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직장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와 교육담당자 등의 기업 측에서, 남녀 직원들 측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직장내 성희롱의 일반적인 특성과 원인·예방·대책 등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단행본 [섹슈얼리티 강의] 발간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통하여 여성의 성적 지위,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 성적 주체성 문제 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지형도를 그려보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의도에서 3월 [섹슈얼리티 강의]를 발간했다.

■ 스포츠 프로그램 모니터 "TV속의 스포츠"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TV모니터팀에서는 4월 3일 KBS <시청자 의견을 듣습니다>에 시청자운동단체가 아이템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TV속으로" 코너에 참여하여, 99배구슈퍼리그 중계와 KBS1<스포츠뉴스>·KBS2<스포츠 중계석>을 모니터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에 나타난 양적·내용적 성차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5회 한국여성대회

"평등·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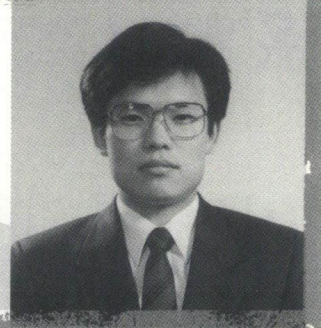
본 상담소가 회원단체로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상담소가 참여한 한국여성대회가 3월 7일 KBS홀에서 열렸으며, 제11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강명순(부스리기선교회 협동 총무, 빈민여성교육선교원 원장)님이 선정되었다.



■ 노래도적 - 99여성문화제 본선대회 참가

"새로운 천년!"

본 상담소 노래패 <노래도적>이 99여성문화제(새로운 천년)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김혜순·노주원/작사, 노래도적/작곡)"로 노래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백수 (변호사)

필자도 스토킹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스토킹에 대한 사례연구, 스토커(stalker)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형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는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스토킹(stalking) 피해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우리사회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 방송사는 특집 프로그램까지 마련하여 스토킹의 실상과 피해대책을 다루었다. 스토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필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보도가 과연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관심에 영합하여 시청률을 높이려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과연 어떠한 수준인지 참으로 궁금하였다.

현재 스토킹에 대한 확립된 개념정의는 없는 상태이지만 통상 스토킹이란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따라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스토킹이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열 번 짝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어찌면 스토킹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스토킹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도시화, 익명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정신의 황폐화 현상의 하나이다. 필자는 이것을 편의상 현대적 의미의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래야만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스토킹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접하는 스토킹에는 병리적 현상의 스토킹과 그렇지 아니한 스토킹이 혼재해 있다. 스토킹 행위 중에 양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통계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아마도 전자가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도 스토킹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스토킹에 대한 사례연구, 스토커(stalker)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형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 대책이 스토커에 대한 법적 처벌인 경우에는 입법과정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스토킹은 구분지을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살인, 강간, 폭행 등 범죄행

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과정(course of conduct)이므로 그 행위과정에 있는 일부분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법적 처벌을 할 경우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전적 의미의 스토킹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의 일부분이므로 가벌성이 있는 스토킹을 가려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토킹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에 대한 사회인식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스토커를 양산하게 될 뿐이다.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법률제정 이후 스토킹이 감소하였다는 통계는 없으며, 공식적인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의 70% 정도가 위반되었고, 경찰의 경고와 같은 비공식적인 개입이 형사법적인 공식제재보다 스토킹 행위의 중단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렇다면, 법률제정에 앞서 현행법률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스토킹에 대한 올바른 사회인식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줄속입법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현행 법률로도 그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상당수의 스토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스토킹의 여러 행위 양태 중 그 일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도 있었지만 법이란 어떻게 운영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의 불비를 탓하기에 앞서 기존법률을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 돌아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스토킹에 대한 사회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악의적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것은 당위다. 그러나 처벌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사회는 스토킹 피해자의 이픔을 어루만지려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적절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눔터**



성폭력피해의 의료적 지원체계

- 98년도 의료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조종진 (본 상담소 일반상담부장)

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성폭력상담은 심리적·법적·의료적 상담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순발력있게 연계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계기관을 확보하여 수시로 자문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피해자는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와 사후 법적인 증거확보의 필요성으로 의료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왔다.

<표1. 의료분야 자문위원>

분야	지원내용	자문위원 수
산부인과	신체적 상해, 임신, 성병감염, 낙태, 증거채취, 증거보관에 관한 조치	15명
정신과	피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세의 진단 및 치료 등	10명
임상병리학	증거채취, 증거보관 방법에 대한 문의나 조치	2명
외과, 정형외과	신체적 상해의 검사, 진단과 치료	3명
법의학자	법의학적 검사와 소견	8명
비뇨기과,감염내과	남성피해의 검진과 에이즈검사	없음
가정의학	지역에서 피해자 연계	1명
치과, 피부과	열린터 내담자의 질병 치료	2명

* 그 외 피해자의 심리검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18명의 아동치료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심리상담가가 지원을 하고 있다.

2. 98년도 내담자 의료지원 현황

98년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상담 2085건 중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435건(20.9%)이며 이중 피해 후 병원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받고 상담을 청한 사례는 169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나 아직 병원에 가지않고 상담을 청한 사례는 266건, 상담하면서 병원 처치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가 335건, 자문위원 병원에 연계해준 경우가 268건이었다. 병원조치를 필요로 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표2. 피해유형>

유형	강간/준강간	강간미수	강간처상	특수강간	성추행-남성피해	기타문의	총건수
건수	236(54.3%)	5(1.1%)	27(6.2%)	53(12.1%)	102(23.5%)	12(2.8%)	435(100%)

<표3. 피해자의 나이>

나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20대	30대	40대이후	미상	총건수
건수	66(15.2%)	51(11.7%)	105(24.1%)	146(33.6%)	31(7.1%)	17(3.9%)	19(4.4%)	435(100%)

<표4. 피해자의 성별>

성별	여	남
총건수 435건(100%)	429건(98.6%)	6건(1.4%)

<표5. 병원 방문 목적 (중복 응답)>

진 단 서 증거채취	치료/검사	정신적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임신방지(낙태)	외상치료	기타	총계
217(32.8%)	188(28.4%)	118(17.9%)	99 (21)(15%)	16(2.4%)	23(3.5%)	661

3. 의료지원에서의 성과와 문제점

(1) 피해에 따른 병원 연계

피해 후에 일단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세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내담자의 피해 상태에 따라 강간의 경우 상해여부, 파열, 염증치료, 임신 및 낙태여부 등에 대해서, 성추행의 경우에는 충혈, 출혈, 염증치료, 증거확인 등의 요구가 많다. 남성피해의 경우에는 항문성교로 인한 염증과 열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 항문외과를 안내하고 에이즈, 성병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감염내과나 보건소를 알려주었다.

(2) 비연계병원과 연계병원의 차별성

치료나 진단이 필요한데도 병원에 다녀오지 않은 경우와 이미 병원에 다녀왔지만 성폭력피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병원에 재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상담소에서 의뢰한 경우 특별 대우나 배려를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진료 제도상의 어려움이나 진료비 문제는 상존하여, 이에 대한 설명과 연계병원에 세심한 배려 요망이 병행되곤 한다.

<표6. 상담 전 방문 병원(중복 진료)>

상담 전 방문병원	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소아과	내과	기타	총건수
건 수	113	20	51	1	1	7	193

의료조치는 피해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병원에서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지방 내담자인 경우 각 지역 상담소를 연계하여 그곳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한 구에 한 병원 정도는 성폭력피해를 담당해줄 의료진과 전국적인 연계망 확보, 지원 가능한 각 분야의 자문위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상담소에서 연계(일반상담부/26건, 열림터/36건)한 사례를 통해 보면, 의료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연계 후 의뢰된 사례에 대하여 연계 의료진과 사례지도 및 자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내담자의 치유와 사건처리가 원만히 진행되어, 내담자 지원에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연계병원이라도 상담소 자문위원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나 증거채취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증거채취물의 보관방법, 보관시기 등(법적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으로 혼란스러웠던 경우도 있었다. 또 피해자들은 ①정액 묻은 휴지를 들고 갔는데 이상하게 취급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는 것 같고, 설명도 안해주고 수근거리는 것 같아 불쾌했다 ②정액효소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설명도 안해주었다 ③진료 시 불편한 질문이나 신분노출이 되게 한 간호사의 불친절 등을 불편했던 사항으로 지적했다.

<표7. 상담 후 병원 연계 (중복 연계)>

상담 후 연계병원	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심리상담소	소아과	지방인 경우 타 단체 연계병원	기타	총건수
건 수	225	11	66	58	1	12	2	405건

<표8. 비연계병원 방문 시 불편했던 사항>

증거채취거부/진단서발급거부	21건
피해자에 대한 인지부족	17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피	13건
잘못된 의료행위	9건
불친절/설명 부족	5건
피해자 비난	1건
비용 과다	1건
총건수	67건

(3) 진료 시의 피해자 보호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떤 종류의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무지하고, 성폭력피해자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는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의료과정과 이의 필요성, 그리고 즉각적 조치 및 사후 보호에 대한 선택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전화상담에서는 치료의 필요성, 자문병원 안내로 그치게 되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피해자가 확실하게 병원에

갈 때는 의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설명과 부락을 해주기도 하고 열림터 내담자의 경우에는 병원동행을 하기도 한다. 병원동행은 피해자가 의료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 하여도 추후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보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검사결과나 진료내용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피해자의 법적 대처나 심리적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접수되어 응급실 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①특별장소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으로 인도되고 ②의료진에게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③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 조치에 관하여 훈련받은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응급실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의 경우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단서 발급 등을 꺼려하거나 비전공자의 처치와 진단서 발급으로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각 종합병원이나 국립병원, 경찰병원 응급실에는 성폭력피해자 검진 차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거나 각 지역에 특정병원을 지정, 또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강간위기센터, 경찰서 내에 의료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4) 증거 확보의 어려움

사건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피해 이전이나 이후에 성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손상이나 상처가 없는 성추행의 경우에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곤 하는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정황의 설명만으로는 성추행에 대한 물적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아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증거확보의 어려움은 늘 따라다니게 된다.

(5) 임신 및 낙태 문제

피해 이후 임신에 대한 우려로 임신방지조치나 임신여부 감별방법, 낙태방법 등을 묻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72시간 이내의 피해인 경우에는 임신방지조치를 할 수가 있으나, 2-3주가 지난 경우는 임신여부를 알 수 없어 매우 불안해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낙태 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와 동행이 있어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는 도덕적·법적·의료적·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 식별은 48시간내의 정액채취, 유전자 감식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신의 원인이 성폭력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법적 처리 시 어려움

피해 당시나 진료 당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고소 여부를 생각할 경향이 없으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근거가 되는 물적 증거의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진료 시, ①신고 안한다는 약속을 받고 서야 진료를 해줌 ②고소 원하면 대학병원에 가서 재진료 받으라고

함 ③진료내역서는 써줄 수 있지만 진단서 발급은 안된다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①성폭력피해일 때 다른 환자보다 상황 경청에 장시간 소요해야 하고 ②법정에 출두하게 될 때 환자 진료를 못하므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 ③가해자 측에서 진료의사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④법정 증인으로 출두하게 될 때 가해자 측의 위협을 받는 경우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9. 법적 처리여부(고소, 신고)>

했다	안했다	하려고 한다	기타/무응답	총계
82 (18.85%)	115 (26.44%)	108 (24.83%)	130 (29.89%)	435 (100%)

(7) 정신과 치료 의뢰

성폭력으로 인한 적응장애 정도의 후유증은 상담소에서 지원 가능하지만, 상담의 한계를 넘는 심각한 정서장애, 사고장애, 행동장애는 전문가의 치료가 요구된다. 이 판단여부는 심리검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며, 이중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는 ①실어증이나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경우 ②자해나 자살기도를 한 경우 ③섭식장애로 80kg 이상이 된 경우 ④통제가 안되는 자위, 강박적인 손담음, 환청, 환각 등의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 등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아동전문상담가나 소아·청소년 전문 정신과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서 정신과, 심리상담가, 상담원(상담소)이 상담을 의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정신과 66건, 전문심리상담기관 58건 연계)

그러나 아직도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부족과 1회 상담에 4~7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 병력에 대한 우려, 사생활과 자존심에 상처로 여겨 정신과병원 치료에 대한 기피가 심한 편이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진단서 발급만 목적으로 지속 치료하지 않는 경우와 고소나 보상에만 급급하여 피해자의 치료는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정신과 연계 시에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비로 지급 받은 보상금이 치료에 제대로 사용되는가의 여부를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성폭력 피해 및 학대, 알콜릭, 약물 등의 문제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될 때 내담자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차별적 부담 등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방법, 대학병

원 진료를 이용한다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표10. 지속치료가 안되는 이유>

비용	가족인식 부족	본인 의지 부족	주변인 의식	의료진의 심리적지지 부족	진단서/증거채취만 원함	기타	총계
14(42.42%)	5(15.2%)	4(12.12%)	3(9.09%)	3(9.09%)	1(3.03%)	3(9.09%)	33(100%)

(8) 장기적 후유증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128건). 어린이, 청소년 시기의 피해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관계 부적응,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가 변화나 성장의 기대도 없이 전화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폭력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신과의사가 그런 일을 가지고 뭘 그러냐는 말에 상처를 받거나 가족들이 걸핏하면 병원에 입원시켜 버린다고 위협한다고 하소연하는 사례, 여러 상담소를 전전하고 자기증세도 전문적으로 묘사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장시간 전화를 계속하면서 면접상담에는 응하지 않고 계속 전화만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정신과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 상담소 상담을 병행해도 좋은지 상담원의 한계 및 역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들의 장기적 치료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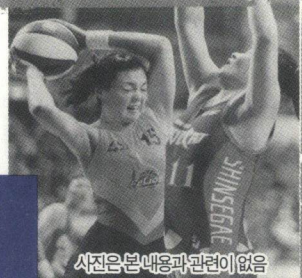
4. 맺음말

98년 한해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의료적 조치와 고소 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극빈자의 경우에 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모색과 효과적인 의료적 조치를 위한 산부인과, 외과, 정신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병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병원연계는 피해자 지원활동에 반드시 필요로 되어지는 만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료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원활동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꾸준한 과제이다. 상담소에서는 의료자문위원끼리의 정기모임과 법률자문위원들과의 연합모임을 통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나눔터**

본 상담소에서는 개소 8주년 기념 행사로 오는 5월 30일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의료진,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성폭력전문상담원들이 함께 한다.

<법률상담 6>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단호하게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동료, 상사에게 알리는 등의 개인적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내처리, 관계기관 진정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선 피해사실을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내 상담실, 신고센터 등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공식적 처리를 요구하는데 이때 가해자의 사과, 부서 이동, 징계 등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가해자에게 공개사과, 각서요구 등의 중재, 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내처리 과정을 통해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1588-7878로 전화하면 각 해당사무소로 연결 가능)에 법적 규제를 요청해 볼 수 있다. 학교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는 올 7월부터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이 없음

미디어와 여성스포츠

본 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 TV 모니터팀

I 들어가며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현실 인식에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듯이, 미디어 스포츠가 구성해내는 메시지 또한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 및 담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미디어 스포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미디어가 여남스포츠를 보도하는 경향 또한 여남운동선수와 여남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을 형성하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센터 TV 모니터팀(김혜운, 박혜은, 오정진, 정덕기, 최유리)에서는 99배구 슈퍼리그 중계와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의 KBS1 <스포츠 뉴스>, KBS2 <스포츠 중계석>을 모니터 하여, 방송에서 재현되는 여성스포츠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II 모니터 결과

- 1 보도량 및 중계량에 나타난 성차별** : 모니터 기간 동안 <스포츠 뉴스>와 <스포츠 중계석>에 보도된 남자경기와 여자경기의 보도건수와 보도시간을 보면, 남자경기 보도건수는 130건으로, 여자경기 51건의 2.5배다. 남자경기의 보도시간은 여자경기 보도시간의 6배를 차지하고 있어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중계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었는데 남자경기는 총 12회의 경기 중 4회를 중계한 반면, 여자경기는 6회의 경기 중 단 한 번, 그것도 정규방송 일정 관계로 끝까지 중계하지도 않았다.
- 2 여남경기보도 비중에 나타난 성차별** : 여남경기보도에 두는 비중도 상당히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중요한 기사일수록 아나운서의 멘트로만 처리하기보다는 기자가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거나 관계자를 찾아 인터뷰한다. 남자경기는 전체 경기 중 57%를 기자가 취재보도 한 반면 여자 경기는 33%만 기자가 보도하였으며, 인터뷰 건수에 있어서도 남자경기에 관한 인터뷰 건수가 여자경기에 비해 7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남자경기는 거의 탐기사로 보도되는 반면 여자경기보도는 그나마도 거의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여자농구연맹 겨울리그가 개막된 2월 23일에도 KBS1에서는 단 16초 짜리 단신으로 보도하였고, KBS2에서는 아예 기사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또, 2월 25일 여자배구슈퍼리그는 최종 챔피언 결정전임에도 불구하고 탐기사로 남자배구를 다룬 것에 비해 영상자료 화면 없이 단신으로 보도했다.
- 3 편집기법에 나타난 성차별** : 스포츠 뉴스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전체 경기장면 중 중요한 부분만을 편집하게 된다. 남자경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기사로 보도하는 만큼 선수들의 도약이 돋보이고 역동감이 두드러지게 편집하는 반면, 여자경기는 성의없는 편집으로 상당히 정적이고 지루한 느낌을 주었다.
- 4 언어적 성차별** : 경기중계 중 아나운서나 해설자의 멘트는 시청자들이 경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흥미있게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런 멘트 중에는 여성에 대한 해설자 개인의 편견이 드러나는 내용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었다.

(1) 여성은 본질적으로 운동에 적합하지 못하다 는 통념 :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더 이상 남성이 독점하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포츠는 남성 전유물이며 여성들은 본성상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는 통념이 반영되는 멘트들이 많았다.

- 여자 선수 경기라 그런지 기록이 심하군요.(1/29 여자배구 중계 중)
- 여자부 경기에서는 저런 모습 나오기 힘든데요... (1/29 여자배구 중계 중)
- 여자 선수들이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1/29 여자배구 중계 중)
- 네, 감독이 아주 답답할 거예요. 남자팀만 지도하다가... (1/29 여자배구 중계 중)

(2) 전문 운동선수이기보다는 여성이다 는 통념 : 스포츠 중계나 보도는 경기나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에 관한 내용을 쉽고 박진감 있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는 무관한 여성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외모나, 결혼·출산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 최장신 여자배구 선수입니다. 아주 미인이죠. 그렇죠. 지금 대학교 4학년. (2/25 여자배구 경기 중)
- 장운희 선수가 주부 선수라서 애를 가질 때가 지났는데, 이번 슈퍼리그 끝나고 고려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2/6 여자배구 중계 중)
- 장운희 선수 여동생은 벌써 애기 엄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어쨌든 아이를 가져야... (2/6 여자배구 중계 중)
- 장운희 선수 올해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출산을 한 이후에... 기대해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8 여자배구 중계 중)
- 홍지연 선수는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 결혼을 안했어요. (2/18 여자배구 중계 중)
- 동료인 장운희 선수는 결혼을 했고, 홍지연 선수는 결혼을 못했는데... 안했지요. 네, 아직 안했는데... 올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2/25 여자배구 중계 중)

III 마치며

시청자들은 다양한 경기를 관람할 권리가 있고, 공영방송은 공정성을 유지하여 한국스포츠의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중). 그러나 이번 모니터 결과는 방송의 여남경기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 시청자들의 여성스포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조장하고 강화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이었다. 여성스포츠를 축소하고 비하하며, 여성선수를 전문인이 아닌 전통적 성역할에 귀속시키는 통념이 계속된다면, 여성스포츠는 '재미없는 경기', '관심없는 스포츠'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건강한 여성스포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여성경기, 탐뉴스로서 성의있고 비중있게 다루어진 여성경기 보도를 통해 과거 여자배구와 여자농구 등 여성스포츠가 누렸던 전성기가 다시 한 번 도래할 것을 기대해본다. **나눔터**

직장내 성희롱

김지혜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성희롱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상담, 예방교육에 대한 기업측의 문의 등 직장내 성희롱 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연구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사례의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일반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1. 98년 직장내 성희롱 상담분석

- 1)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 본 상담소에 접수된 1998년의 전체 성폭력 상담은 총 2085건, 이중 직장내 성폭력(직장내 성폭력에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340건)로 성희롱이 46.2%(157건), 강간이 42.6%(14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64.3%, 101건), 그 다음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24.2%(38건)를 차지한다. 성희롱은 어느 한 유형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피해자/가해자의 특성**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85% 이상이 20대와 그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20대의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중 91%를 차지)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시각적 성희롱이나 성적봉사를 요구하는 것은 미혼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30·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이 더 많다.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96.8%는 남성이고, 가해자의 연령은 피해자에 비해 연령대가 높고, 30대에서 6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가해자의 80% 이상이 기혼자이며, 이는 성희롱이 미혼의 여성이 구애를 받는 과정이거나, 미혼의 남성이 구애를 하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던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 3) **직장내 성희롱의 직업별 특성** : 피해자의 직업은 여성의 진출이 많은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이 각각 51.7%, 15.8%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는 행정관리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직장내 성희롱은 특정한 직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은 규모가 큰 직장보다는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내로 작은 경우가 27.8%, 5인 이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67.8%를 차지하고 있지만, 5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직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여직원의 수 또한 그리 많지 않은 특성을 보인다. 소규모일수록 가해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가깝거나 고용주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상사(48.4%), 고용주(32.9%)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81.3%를 차지한다. 현재 성희롱 관련법들에서는 거래처(2.6%), 고객(5.2%)이 제외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역시 직장내의 성격적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 4) **직장내 성희롱 발생 상황의 특성** : 성희롱 피해의 70% 가량이 근무시간 중에 일어나고, 발생장소는 직장 내가 85건(64%)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이외에는 30%정도로 회식, 업무를 빌미로 휴일 등에 일어나는 것이나, 이때에도 술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75%, 6개월 이내에 92.9%가 발생하고 있다. 구직을 하는 과정인 취업이나 면접 시에도 10.7%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직장내 성희롱 피해의 특성** : 피해 시 물리적 저항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 대처를 한 사람은 64.1%,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경우가 3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지속되는 경향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은 1회적 발생이 39.3%,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60.7%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이 지속적인 이유는 ①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②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오히려 이상한 여자로 취급될 위험성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 ③주변인들이 사실을 알려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 ④성희롱을 상사나 고용주 등의 부하직원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⑤또한 직장이라는 특성(생계문제), 여직원의 낮은 지위, 그리고 이제 갓 입사한 경우의 어려움들 때문에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⑥피해자들의 여성적 특성(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피해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적 피해** : 고용주에 의해 해고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로 자신이 퇴사를 하고, 퇴사를 고려하는 비율은 31건으로 22.2%나 차지한다. 해고의 위협을 느끼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는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동반한다. 또한 업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된다.
- **심리적 피해** : 성희롱 피해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심리적 피해는 불안, 억울함, 분노, 자기비하감 등으로 나타난다. 증세가 심각한 경우는 이렇게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벗어나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례도 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손상으로 여성에 의한 피해보다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유발하기도 한다.

2. 일반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본 지침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자나 상담자, 관리자가 알아야 할 점, 성희롱 관련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서의 특성은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교육안, 상담요령 등의 자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직장내 상담실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부: 일반직원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

성희롱에 대한 인지도 테스트, 법 조항을 통해 본 성희롱 개념, 상담을 통한 성희롱 실태,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과 예방법을 다루고 있다.

〈2부: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

성희롱의 문제를 다루면서 갖추어야 할 판단기준, 상담 시 유의사항, 교육 내용과 강의안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본 지침서를 이용해 교육자들이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강의안, 역할극을 위한 사례와 feedback, 교육의 주안점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를 상담하게 되는 상담자의 경우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상담 일지의 기록 요령, 가해자에게 사과편지 쓰는 요령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3부: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전문과 기타 관련법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나눔터**



성평등교육문화센터 ☎ 576-7128

- 새로운 성교육의 도전 -

한은희 (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성교육의 '지지자들' 과 '반대자들' 은 많은 경우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들에 대해 같은 걱정과 희망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과 가치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의 목적은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체계 안에서 성과 재생산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결정과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태도 그리고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를 위한 트레이닝과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의 원칙들은 우리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Sexuality)은 인성과 인간관계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 성교육은 가정과 가족 안에서 시작되며 인생전체를 통해 지속되는 과정이다. · 성교육은 또래집단, 문화적 유산, 미디어, 광고, 종교적 교리, 그리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사회적 관습과 변화하는 기술들의 영향에 의한 비공식적인 학습뿐 아니라 공식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성은 성행동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 성은 인간발달의 한 측면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적 환경의 맥락뿐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성장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사랑과 성에 대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필요하다. 또한 성과 출산에 관계된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 적절한 자아존중감은 성에 관련된 건강하고 윤리적이며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 성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든 그것은 결과를 가져온다. · 성에 대한 결정은 각 개인의 존엄성, 평등, 그리고 가치를 지지해 주는 쪽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적 행동의 의료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효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성과 출산에 관련된 결정은 자아존중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에 기반되어야 한다. · 자신이 가진 가치: 가족, 문화, 종교적인 유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민주적인 원칙에 대한 존중 · 어떤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경험을 강요하거나 병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아무도 적절하게 양육해 주지 못하는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 어린 청소년들은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파생효과 때문에 대부분 성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부모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질 수 없는 많은 책임과 관계가 있다. ·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초보적인 성교육 교사이다. 하지만, 유일한 교사이거나 가장 훌륭한 지식의 전달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학교나 교회, 가족계획 센터 같은 사회적 기관은 보조적이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성과 출산에 관련된 주제로 그들의 부모들이나 다른 성숙한 어른들과 토론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 공식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적 가치와 행동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이고 급작스럽고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 부모들과 지역사회의 어른들은 공식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해야 한다. ·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 교육자들은 고도로 훈련되어야 하며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전문적인 윤리관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넓은 범위에 걸쳐 있으며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The Sexuality Education Challenge> ETR Associations, 1994 중에서 **나눔터**

홈페이지 SISTERS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힘겨운 작업들이 드디어 사이버공간에서 향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본 상담소 홈페이지가 그 정체를 드러낸 즈음, 정보사업부장 임정진옥님과 [나눔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홈페이지 SISTERS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작업과정과 세부메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

탄생배경에 대해 간략히...

유니텔과 천리안에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정보를 제공하면서 느낀건데 사용할수록 통신이 유용하더라구요. 특히 우리처럼 대내외적인 연대와 정보공유가 중요한 민간단체들의 경우에는 통신을 활용한 운동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업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음.. 제가 워낙 컴맹이다 보니까. 다른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법정지원팀의 원조홈페이지를 만든 이중구님, 프로그래머이면서 peacenet 자원활동가인 유호상님, 그리고 디자인을 맡아주신 배호영님이 핵심멤버구요.. 지킴이 안박은정님과 김정수님도 초기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웹디자인을 못구해서 찢절 매던 때에 제가 최후수단으로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마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출근하자마자 글 올려놓고 잠깐 외부 나갔다가 상담소 문열고 들어오는 순간 배호영님의 전화가 오더라구요. 정말 운도 좋죠. 하하...

다른 단체의 홈페이지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

예. 바로 그거거든요 ^^; ... 단체의 활동과 홍보중심인 단체의 홈페이지와 달리 SISTERS는 관심있는 소수를 위한 사이트가 아닌 누구나 편하게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사이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재미있게 읽고 참여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SISTERS라는 이름도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우리의 지향점과 하는 일을 SISTERS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들을 위한 집(Shelter)이며, 여성의 자립(Independence)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 여성을 억압하는 다양한 주제들 중에서 성(Sexuality)을 중심명제로

삼고 있으며, 대중교육(Teaching)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Rights) 회복을 통한 자유롭고 평등(Equality)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상담소 홈페이지는 뜻을 함께 하는 많은 네티즌들과 교감(Sharing)하는 장소이고자 합니다.

메뉴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성폭력상담소 사이트니까 [성폭력 필수정보]는 당연하겠죠? 또 피해자들이 email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심적인 성 정보를 제공하는 [재미있는 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 결정했어] 와 [TEST], 미미와 당근쥬스가 쓰는 [보글보글 영화이야기] 코너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미와 당근쥬스는 상담소 자원활동가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직접 가자니 너무 멀고, 국제전화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SISTERS를 통해 국제연대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이버공간 내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운동사이트로 정착시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 당부말씀!!! 이 글을 보신 분들은 필히 게시판에 들러서 흔적을 남겨주세요. **나눔터**

천리안, 유니텔 ID : KSVRC E-Mail : ksvrc@chollian.net http://www.sisters.or.kr

본 상담소의 홈페이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평등한 성문화 창달]을 기치로,
 인터넷 - 그 무수한 장점과 함께 '사이버 홍등가'라는
 불명예스런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는 - 에서의
 건강한 성문화 운동을 위해 닦는 힘찬 걸음의 시작입니다.

‘섹슈얼리티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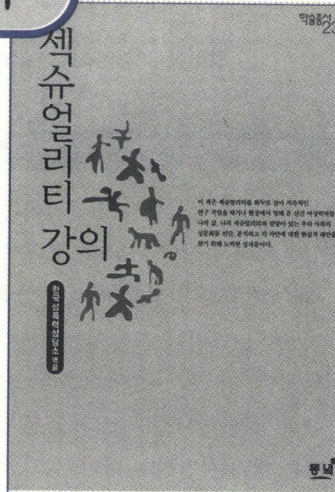
윤이경미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지난 92년 『일그러진 性문화, 바로보는 性』을 발간한 바 있는 상담소는 이 책에서 주로 성폭력에 관련된 성문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의 성적 구조 속에서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상황설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만큼 우리 사회 일반 여성이 삶의 곳곳에서 성적 불평등과 억압 아래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일관된 틀로 설명될 수 있는 형태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점점 여성과 남성의 구도를 이분법이라는 틀 속으로 밀어 넣어 단순화를 반복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담소는 두 번째 단행본을 기획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소가 엮어낸 두 번째 단행본 ‘섹슈얼리티 강의’(도서출판 『동녘』, 9000원)는 엄청난 속도로 변신하는 성담론의 색깔을 통합하여 단일한 목소리로 모아내려는 것에 목적을 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하면 다양한 대로, 흘러가는 과정에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혼란한 것은 혼란한 대로, 변모를 꾀하고 있으면 꾀하는 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성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고 바라보고 또 더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어떤 것은 여러 번 회자된 주제를 한 번 더 다룬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논의가 막 시작된 주제여서 그 주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다루는 것도 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동안 당연시 하여왔던 피해자적 입장에서의 여성이라는 틀에 대하여 사고의 지평을 넓히도록 도전하는 글도 있다.

그러나 어떤 주제를 화두로 삼든 각 글은, 섹슈얼리티 논의가 시작되고 성문화가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아직 척박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여기 지금’의 성적 현상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분석의 메스를 들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직수입된 이론이 아니라 근대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는 그런 문제의식과 관점과 전망을 만들어가려고 한 것이다.

이 책은 전체 구성을 2부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틀로 나뉜다. 앞의 두 장에서는 이론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아



직 각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성연구 전반을 성찰하면서 성별/섹슈얼리티의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으며(1장), 역사적 지점에서 성적 주체의 구성방식을 들여다봄으로써 섹슈얼리티 정치성의 방향성을 제안한다(2장).

3장부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성된 성문화의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몸과 여성성, 일상화된 포르노그래피의 정치학, 여성의 주요 과업이 되다시피한 다이어트를 통해 본 여성성과 그 의미구성, 성매매에 대한 관점을 구성하기, 미혼의 연애과정에 나타나는 낙태의 현실을 통해본 여성의 성적 주체성 문제, 한국레즈비언의 성과 삶, 성폭력 의미가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 성폭력 가해자를 통해 본 남성의 섹슈얼리티 형성 메카니즘 등이 각 논의에서 화두로 삼는 것들이다.

이 책의 필자는 여성학 전공자, 여성문제를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면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현장에서, 일상에서 접근하는 사람으로서 각 전공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상담소 또는 연구소와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함께 여러 측면에서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또 한가지 이 책의 기획의도는 대학 내에서 여성학이나 성 관련 강의를 할 때 교재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여성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방법론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형식을 지양하고 상호개방적이면서 토론중심의 진행방식을 선호하고, 내용면에서는 자기 삶 속에서 체화된 부분과 경험을 나누면서 그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관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 책은 여러 성적 창구를 통하여 자기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전국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좋은 책은 좋은 독자가 만든다. **나눔터**

민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

박미라 (페미니스트 저널<if>편집장)



민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

여성에게 있어서 조선시대는 억압과 굴종의 시대 이상이 아니다. 도대체 그런 시대에 무슨 기쁨과 인생의 의미가 있었을까 고개를 젓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불렀던 그들의 노래, 여성들의 집단 자서전, 여성민요를 알고 나면 그런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피상적인가 알게 된다. 물론 조선시대가 여성민요에 살 만하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살기 힘들수록 더욱 풍부해졌던 민요의 세계, 그들의 시, 수준 높은 노래가 있었기에 나는 조선시대를 평민여성들의 문학의 전성기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 과거 여성들의 노래를 통해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잠아잠아 오지마라 요내눈에 오는잠은
말도많고 흥도많다 잠든눈을 썩빠여서
탱자나무 걸어놓고 들며보고 날며보니
탱자나무도 꼬박꼬박

<잠노래>

그 당시 여자들에게 가장 괴로운 상황을 꼽아보자면 단연 '잠 부족'과 '고된 노동'과 '시집살이'였다. 남자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야 하고, 하루종일 밥하고 물 길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길쌈하고, 거기다 틈틈이 아이 젖까지 물리느라 늘 종종걸음을 쳐야 한다. 밤이 되어 식구들이 모두 잠들면 호롱불 밑에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바느질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잠을 쫓기 위해 <잠노래>를 중얼거렸을 것이다.

할 일은 끝도 없는데 지친 몸에 졸음은 덮쳐오고 시부모의 엄한 눈초리 조차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어찌나 졸음이 심하면 잠든 눈을 빼서 탱자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탱자나무조차 꼬박꼬박 졸았을까. 실제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서너 시간 자기가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시집은지 삼일만에 발을매러 가라하네
사래길고 장찬발을 메와같이 거친발을
골호맹이 손에쥐고 삼베수건 목에걸고
안반같이 넓은골에 서발장대 뽀은골에
한골매고 두골매네 바늘골무 노던손에
모죽잡기 웬말인가 붓자루가 노던손에
모죽잡기 웬말인가 은가락지 끼던손에
호미자루 웬일인고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사골을 매고나니 점심참이 되었구나
한골매고 돌아보고 두골매고 돌아봐도
이내점심 아니온다...

<발노래>

곱게 차리고 앉아 바느질이나 하고, 붓으로 서화를 즐기던 자신이 호미

를 들고 한없이 길고 거친 발을 매다니 이게 웬말 인가고 한탄을 하는 노래이다. 보통 이렇게 시작 하는 노래 뒤에는 길고 긴 이야기가 계속된다. 배고픔에 못이긴 며느리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니 시집식구들이 '그것도 일이라고 벌써 들어왔느냐'고 타박을 하며 말라비틀어진 밥과 오래 묵은 '꼬랑쟁'을 내준다. 설움을 못이긴 며느리는 자신이 시집을 때 입었던 열두 폭 치마를 찢어 바람을 만들어 지고 산으로 들어가 중이 된다. 중이 되어 시집엘 가보니 집안은 폐허가 되어 있고 시집 식구들은 모두 죽어버렸다. 죽어도 며느리 마음의 원한은 가시질 않는다. 이 노래는 다 음과 같이 끝을 맺는 것이다.

'시아버지묘엔 호령꽃 시어머니묘엔 앙살꽃 시 누이묘엔 요망꽃이 피었네'



민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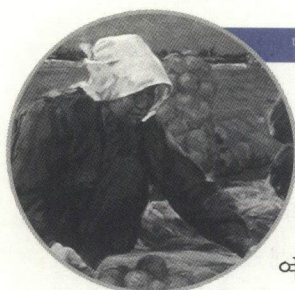
고된 노동과 배고픔, 그리고 시집살이의 고통이 위 노래에 모두 담겨 있다. 노동과 배고픔의 고통은 그 당시 땅에 엎드려 일하던 평민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극심하게 배꼽이를 겪어야 했다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며느리들의 배 곯았던 사정을 들어보자.

...시아머니가 다불대(다올대: 벼들의 부속품 중 하나로 긴 막대기처럼 생겼다)로 미느리(며느리)를 때리고 그랬너(그랬습니다). 밥은 또 지대로 주나? 밥은 또 한 숟갈씩 주고, 뭇다꼬 "일도 모하는(못하는) 게 밥은 마이 묵나?" 카매. 그랬디 미느리가 정지(부엌)에서 밥을 가마이 묵다가 누가 오이께네 마 급한대로 부석(아궁이)에 열었거든? 냉중에 시어마이가 재를 치이께네 밥덩거리가, 재가 묻어 까마이 된 밥덩거리가 부석에서 툭 툭 구부러져(굴러) 나온다 말이라. 아이구, 밥덩거리가 나와가(나와서) 또 뚜디리 맞고, 울고, 괴롭

고 말고지...<김점호 구술, (뿌리깊은 나무 민중사 서전6)>

이런 며느리들에겐 시부모가 증오의 대상이었으리라. 시부모가 들으면 섭섭할 일이지만 옛날 시집살이 민요에는 섬뜩하리만치의 미움과 증오가 서려 있다.

눈에가면 거머리원수 발에가면 포래기(잡초)원수
집으로가면 시어머니원수 세월수를 잡아다가
당사실로 칭칭감어 범에굴로나 보내세
<밭노래>



민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

하지만 '열두 폭 치마가 눈물받이로 다 찌을 만큼' (시집살이요 중에서) 처절한 상황에서도 여자들은 미움을 미움으로만 접어두지 못한다. 여자들의 '극적인 자리바꿈'의 상황이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극적인 자리바꿈'이란 다름 아닌 '혼인'이다. 십 오륙 년 이상 김씨네 자손으로 자라던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박씨네로 시집가서 그 집의 귀신이 되어야 했던 그 기막힌 자리바꿈, 울케에게 눈의 가시처럼 매정하게 행동했던 시누이에서 다시 설움 받는 울케가 되는 자리바꿈을 통해 여자들은 인간이란 미워만 하며 살 수만은 없는 존재임을 절감한다.

도리도리 삼간집에 딸하나를 고이길러
십리밖에 아들이워 시집간지 사흘만에
쫓김쫓김 쫓겨왔네....
우리성님 내다보다 깃만남은 적삼에다
말만남은 치매에다 뒷축없는 짚세기에
안밖춤을 추는구나 니도간께 그러드나
나도온께 그러드라 너그러미 너킬세라
울어머니 나킬세라 열이열이 같은세라
<시집살이요>

시누이 노릇을 툭툭히 하던 처녀가 시집을 갔다가 사흘만에 쫓겨왔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들 뛰어 나가 이게 웬일이냐며 안스러워하는데 시집살이가 심해 행색이 말이 아닌 울케가 춤을 추며 이런 말을 한다. '너도 시집가니까 이제야 알겠냐. 내가 바

로 그렇게 당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귀하게 키웠네 우리 친정 어머니에겐 나도 역시 귀한 자식이었다...' 십 년 이십 년이 지나 시집살이에 이골이 날 정도가 되면 이제 시집 식구에 대한 증오는 '정'으로 변한다. 물론 살가운 정은 아니리라. 온갖 애증과 회한으로 뒤엉킨 '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풍자와 해학을 노래에 실을 만큼 여유가 생긴다.

시아버지 죽었다고 춤을춰더니 사랑방에 돛자리가 떨어지니 생각나네
시어머니 죽었다고 활개를 쳤더니 보리밥에 물뉘놓니 생각나네
시동서 죽었다고 좋아했더니 서방님을 바라보니 가련도하다.
<시집살이요>

시아버지는 돛자리를 잘 짜주었고, 시어머니는 보리밥에 물 말아먹기를 좋아했었나 보다. 시앗(첩) 다음으로 밍다는 동서가 죽으니 좋기는 한데 시이주머니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든다는 노래다.

그 당시 여자들의 노래가 삶에 대한 힘겨움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을 거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진짜 자신들만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에서 필자가 만났던 고령의 할머니들은 지금도 여성민요를 외고, 부르고, 때론 각색과 편곡도 하고, '자신이 노래'라며 즉석에서 신세타령요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 무명의 여자들 한 명 한 명이 알고 보면 시인이었던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다. 노래라고는 대중매체가 전해준 가요밖에는 아는 게 없으며, 펜을 잡고 앉으면 갑자기 막막해져 단 한 줄의 글도 써지질 않으니. **나눔터**

<책 소개>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딸과 여자들의 44가지 사례연구

메리 파이퍼 / 김영혜 · 김영재 옮김(문학동네 권, 1999)

우리가 자신을 여자라고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은 우리들의 본래적인 자아에 대한 엄청난 혼란임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시기이다.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청소년기 소녀들에 대한 상담사례를 통해 그녀들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폭력성을 보여준다. 자신을 '장미로 만들기 위해 잘려지는 질 좋은 당근'으로 표현하는 한 소녀의 말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겪게되는 엄청난 폭력과 고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그것은 그녀들의 자아가 겪게되는 죽음의 경험이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폭력 앞에 절망하고 파괴되는 소녀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 숨겨져 있는 소녀들의 창조적 힘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사실에 있다. 뒤틀려 보이는 듯한 소녀들의 청소년기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해서도 안되고 또한 동정해서도 안된다. 그녀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는 순간 아득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그녀들이 자신의 온전한 자아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저항과 싸움의 의지가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녀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할 일은 분명해진다. 그녀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지지를 보내는 것. 그것은 그녀들의 내면적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내고 그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부정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소녀들(그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다)의 창조적 힘에 대한 우선적인 신뢰 속에서만 가능할 것임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지킴이 김보연 정리>

관객이라는 마지막 장인(匠人)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영화는 감독·배우·관객이라는 세 명의 장인(匠人)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는 이미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인(匠人)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완의 작품으로 우리 곁에 남겨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장인(匠人)의 손길로 빛을 내든지, 허술한 견습공의 무심한 손길로 스쳐지나가든지 그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인 셈이다.

문효진 (본 상담소 재정부장)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영화에 대한 나의 취향은 좀 엉뚱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액션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적들에게 총을 휘갈겨대며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세례를 무사히-가끔은 생명에 지장 없을 정도로 다쳐서- 피해 나오는 주인공보다는, 도무지 조준해서 쏘았다고는 볼 수 없는 주인공의 성의 없는 총알에 기울 가랑잎처럼 우수수 쓰러져 가는 무수한 엑스트라에게 흔히 감정이입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액션영화를 잘 본다. 한결같이 주인공을 향해있는 사람들의 무심함에 어떻게 한 번 동참해 볼까하는 놀라운 사회화의 의지로, 혹은 내 나름대로 설정한 주인공-사람들로부터는 엑스트라라고 불리우는 이들-과의 짧은 교감을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액션영화를 열심히 보곤 한다. 액션영화에 대한 이러한 나의 엇갈린 취향은 그곳이 내게 있어서 소외에 대한 발버둥의 공간이면서, 철저한 소외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4분 짜리 다큐멘터리 '조디 포스터 이야기'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동숭홀에서 열린 제2회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뒤집어보기-여성환상도래'라는 주제 아래 상영되었던 작품이다.

매체를 통해 포장된 이미지와 그들의 실제 이미지 사이의 틈새를 많이 보아온 나는 '스타'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별다른 기대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조디 포스터'는 아직까지 내게 그 틈새를 보이지 않은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이기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론 나는 그가 출연한 모든 영화를 빠짐없이 볼만큼 그의 존재에 대해 열정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출연했던 어떤 영화에서 그가 지녔던 눈빛과 웃음, 의지적 분위기를 오랫동안 기억해 오고 있다.

서울여성영화제 대표구에서 조디 포스터가 주연하고 감독한 작품을 찾는 어떤 사람을 맞닥뜨렸는데, 아마 '조디 포스터 이야기'를 두고 한 말인 듯 싶었다. 사실 '조디 포스터 이야기'는 '조디 포스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디 포스터를 향한' 독특한 심선들의 모음이다. 즉, '조디 포스터'라는 대중 스타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특정집단-레즈비언-의 문화코드에 맞게 읽어 내려가면서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디 포스터 이야기'에서 '조디 포스터'를 둘러싼 관객집단이 보여주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공유 양식은 그들의 정체성에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힘이 되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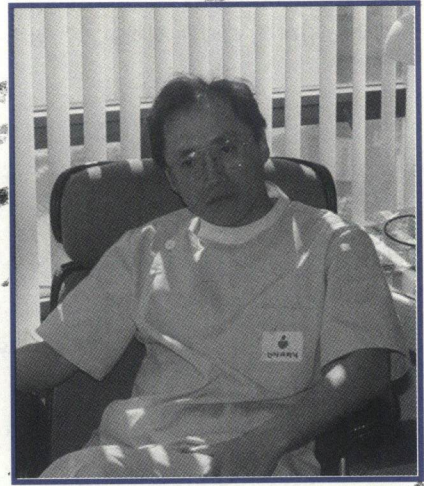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영화는 감독·배우·관객이라는 세 명의 장인(匠人)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는 이미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인(匠人)의 손길을 기다리는 미완의 작품으로 우리 곁에 남겨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장인(匠人)의 손길로 빛을 내든지, 허술한 견습공의 무심한 손길로 스쳐지나가든지 그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인 셈이다.

'조디 포스터 이야기'로부터 나는 우리에게 각기 관객이라는 마지막 장인(匠人)의 이름을 빛낼 권리 혹은 의무가 있음을 깨닫는다. 21세기의 문턱에서 맞이한 제2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해 주며 변혁의 물꼬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할 때 일 것이다. **나눔터**

첫 걸음을 디디며

대중예술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인 영화와 비디오, 이 미디어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인 사랑, 성, 폭력, 본인이 평소 전공이 아닌 분야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과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시작한 첫 걸음에 기대와 다짐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엽 (본 상담소 이사, '신사크리닉' 원장)



40대 후반의 나이이다.

이 동안 모든 의사는 대체로 40대 중반까지 자신의 본업에 매진하는데 정신을 뺏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자신의 주 전공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고, 환자 진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때부터 자신의 내재된 문제나, 일상 속에 묻혀 기를 펴지 못했던 내면 세계를 하나씩 들춰보게 된다. 멀쩡히 열심히 하던 이비인후과의원을 갑자기 후배에게 물려주고 2년 정도 캐나다 유학간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자신의 크리닉 내부를 개조해서 아프리카를 만들어 학생 때의 취미이던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설치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것이 이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필자의 전공은 치과 중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노인치과'이다. 전공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인지 위에 언급한 정서적 여유를 갖는 데도 다른 이들보다 약 5년 정도 늦은 듯하다.

대중예술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야인 영화와 비디오, 이 미디어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인 사랑, 성, 폭력, 본인이 평소 전공이 아닌 분야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과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시작한 첫 걸음에 기대와 다짐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1년 정도밖에 안된 상담소 생활을 돌이켜 보면, 상담소에 이사로 계시는 오세민 선생님의 추천으로 크게 사전 지식 없이 참가한 첫 이사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마스크이나 인쇄매체를 통해서만 들었음직한 엄청난 일들이 이 속에서는 일상의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그 일들의 시작과 끝에서 함께 하시는 다른 이사분들의 열의에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이 사회 속의 성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깊은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수 차례 모임에 참석하면서 점점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에 맡을 디딘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 아름답게 향유될 수 있는 '성'이 자리잡을 수 있는 선진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 현대에서 선진국(선진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GNP만 높아져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및 국가 사회적인 성숙도의 총체로서의 선진국을 일컫는 것이고 참고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IMF를 지난 요즘 중중진국 또는 중하진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일수록 성적인 관심과 성문제의 총량은 증가되고 있고, 이는 후진국 국민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본다. GNP로 평가되는 선진국이 아니라 성평등한 관점에서 성적 즐거움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사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선진사회로의 진출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우리 상담소의 업무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그 업무가 넓어지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선진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이사로서의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 **다눔터**

나눔터 게시판 ★

■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 김태경, 레베카, 심창교, (주)윈조이레포즈, 윤이경미, 이희숙, 장윤경, 최선규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권해수, 김정희, 박찬혁, 이경애, 이상엽, 이순열, 이장호, 장종순, 정대현, 한주한

■ 일월부터 삼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금철영, 김경희, 김도희, 김동령, 김미경, 김소명, 김순형, 김영애, 김원애, 김은숙, 김일륜, 김춘란, 김혜숙, 김화영, 박경원, 박원규, 박정화, 서천석, 송남두, 송성애, 신상호, 신정자, 심화란, 심훈, 양민희, 오남주, 오은화, 우경아, 유숙영, 육향순, 이명자, 이상근, 이선순, 이선이, 이윤미, 이재인, 이정아, 이정호, 이진선, 이푸른매, 이효희, 임자영, 전경림, 전범용, 전승완, 정경란, 정경아, 정교화, 조경애, 조소연, 조은화, 조정자, 주서현, 주세진, 차재순, 최말순, 최옥경, 최유정, 최정운, 홍사울, 홍성복, 홍순영

■ 일월부터 삼월까지 회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강남식, 고순례, 권진숙, 김강자, 김미숙, 김병숙, 김종구, 김준호, 김지혜, 김춘복, 김현란, 김현식, 김혜원, 남순열, 노주희, 류재경, 문효진, 민응기, 박미라, 박미숙, 박희경, 변인희, 심창교, 오숙희, 오정현, 오현숙, 유수아, 윤경, 윤용미, 이경로, 이경미, 이경애, 이규화, 이미경, 이영분, 이윤상, 이희숙, 임종은, 장연집, 장윤경, 장정순, 장화정, 정성광, 정유석, 정진욱, 조중신, 최동석, 최영애, 최지녀, 한은희, 홍보연, 홍승아, 홍은정

■ 나눔터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계간 [나눔터]를 보시려면 연 6,000원을 송금하신 후 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 : 009-01-1176-632(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계좌이체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후원)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후원금은 현재 지로로 납부가 되고 있으나, 계좌이체를 신청하여 주시면 (후원)회원님께서 매번 은행에 가서서 지로로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물론, 지로로 납부할 때 본 상담소에서 부담하는 수수료와 발송료가 절약되어 저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후원)회원님께서 신분증, 본인통장, 통장도장, 비밀번호, 상담소 계좌번호를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서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님께서 약정해주신 금액이 저희 상담소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 개설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하신 후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일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상업은행	441-04-107528

* 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이런 일을 합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에서는 98년 11월부터 본 상담소 IP에 [미디어 시비결기] 난을 개설하여 대중매체(TV, 라디오, 잡지, 신문, 영화 등)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사례를 통신인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리안/유니텔 go stoprape](#) → [\[미디어 시비결기\]](#) → [\[고발합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개소 8주년 기념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본 상담소가 개소 8주년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의료전문가와 의료기관을 널리 확보하고 피해자를 위한 의료적·법적·상담지원의 유기적 체계 마련을 위하여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를 5월 30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법의학회·임상심리학회·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우리사회 성폭력의 실태와 의료적 지원현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리사회 성폭력의 실태와 의료적 지원현황**에서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 사례 및 분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성폭력 피해 장기 후유증의 정신과 진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지원**에서는 심리검사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에서는 효과적인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법과 상해진단서 작성법,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성폭력 피해의 의료적 지원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문의 : **한은희 부장 / (02)576-7128**

새로 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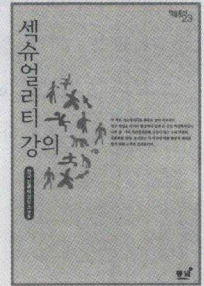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일반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고평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각 사업장별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성희롱 관련 법 조항 전문을 참고하여 일반직원은 성희롱 전반을 알아야 하고, 상담자 또는 관리자는 교육과 상담의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 자료는 본 상담소에 의뢰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에 나타난 성희롱의 여러 특성 및 대처·예방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가격 : 2,500원

[섹슈얼리티 강의] 도서출판 동행, 1999년. 가격 : 9,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 가능

1. 한국 페미니즘 성 연구의 현황과 전망
2.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3. 영화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성과 육체
4. 일상생활 속의 포르노그라피와 정치학
5. 여성의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 본 몸의 정치학
6. 우리는 왜 성 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7. 낙태보고서-연애에 나타난 권력지형도
8. 한국 레스비언의 성과 삶
9. 성폭력 의미구성과 여성의 차이
10.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구입문의 : 이경미 책임연구원 / (02)576-5450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님의 성교육 교재로 적합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건강한 성 규범을 갖추 수 있도록 이끄는 성교육이 부재한 환경 속에서 온갖 일탈적인 성문화에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작된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왜곡된 의사소통이 성폭력이라는 무서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토론자료가 담긴 팜플렛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 몇 가지 유형을 통해 성희롱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알려줍니다.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구입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여회의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 국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99년 1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장윤경 사무국장 / (02)576-7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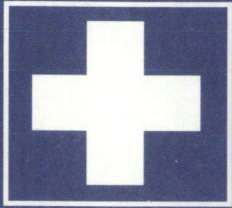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위기상담 : (02)573-1888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애'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이사** 강학중·문혜란·민병진·박금자·오세민·윤정순·이상엽·이종걸·조영환·최영애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지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 기독교윤리학/김희은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경호·장재호·장철우·정갑생·정성광·정연순·조영환·최은순·최현희 경찰/김강자 ● **상담** 인간재활학/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전양숙·정연옥 심리학/김정규·이윤로·이강호·이혜성·장연집·정남운·채규만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한인영·현혜순 상담심리학/권혜수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황적준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금자·박종민·윤경·이길여·이신애·이유주·임용택·정경원·조삼현·조정현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외과/오세민·주수호 임상병리학/강정욱·문혜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장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치과/이상엽 ● **재정** 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임종은 대한적십자사지문위원/윤정순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전여옥 여성학/박혜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프리랜서/여난영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지문위원 신문방송학/강명구·김훈순·원용진·홍석경 기자/백지연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소장/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실·변혜정·이재경·장필화·주주현·허라금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진숙·김엘림·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대표이사** 박금자 ● **소장** 최영애



서울치과병원

Seoul Dental Hospital

진료과목 교정과/치주과/보철과/보존과/신경치료과/소아치과

병원장 : 민병진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동대학원(교정학) 졸업
- 보스턴 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하버드 대학교 치과대학원(교정학) 수료
- 하버드 대학교 Research Fellow
- 미국치과의사 면허 취득



• TEL : 547-7708/9 • FAX : 549-2518
 • 주 소 : 강남구 신사동 624-13(압구정동 소망교회 옆)

미국 유학 · 입학 안내서

미국 사립 · 고등학교 소개서

한미 양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여 두개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갖고, 양국의 교육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저자에 의해 미국 전역의 중 · 고등학교 중 학과 프로그램과 시설이 가장 뛰어난 3000여 사립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

- **학교 소개**
설립년도, 설립자, 학교위치, 교육목적과 지도방침
- **입학정보**
입학 지원 시 필요한 서류와 시험, 면접과 합격통보, 학교방문 가능시간 등 소개
- **학과 프로그램**
연간 이수해야 할 과목수, 우수반 및 복수과정
교사 1인당 학생수, 성적평가방법, 과외 프로그램
- **대학입학**
대입과 취업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수능시험(주로 SAT)성적 및 졸업생들이 많이 입학한 대학
- **학비와 재정적인 보조**
등록금, 납입금 납부방법, 장학금 및 학자금 용자
- **입학통신 : 학교연락처 및 입학 담당자 소개**

● 구입문의처 : 서울치과병원 547-7709(박후경)
 ● 저자 민병진 : 현 서울치과병원 병원장



친절하고, 항상 연구 노력하는 전문 의료진들이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박금자 산부인과

특별 진료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신체적 피해 증거 확보, 임신 및 성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성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담합니다.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00 - 오후 6:00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일요일 : 휴진

공휴일 : 오전 9:00 - 오후 1:00



여성 전문 병원
박금자 산부인과

여성 종합 건강 검진 센터
여성 불임 연구소
유 전 학 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3-3번지(150-070)
전화 : (02)846-1503, 841-5496, 831-2775
팩스 : (02)849-6388, 상담 : (02)847-4997

